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4년 2월

석사학위 논문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타당화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 란 희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타당화 연구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2024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 란 희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타당화 연구

지도교수 김 나 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서 란 희

서란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정승아 (인)

위 원 김택호 (인)

위 원 김나래 (인)

2023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8
제2장 이론적 배경	9
제1절 완벽주의	9
제2절 학업적 완벽주의	14
1. 완벽주의와 학업 관련 연구	14
2. 기존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한계	16
제3절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	18
1. 척도 개발 및 요인구조	18
2. 타당도 관련 변인	20
가. 학업소진	20
나.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21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22
라. 심리적 부적응(학업 스트레스, 우울, 불안)	23
제3장 연구 방법	24
제1절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 번역 절차	24
제2절 연구 대상	25
제3절 측정 도구	26

1.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CAPS)	26
2. 불안 척도 (GAD-7)	26
3. 학업소진 척도 (MBI-SS)	27
4. BTPS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	27
5. 축약형 CES-D 척도	28
6. 학업 스트레스 척도	28
7.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29
8.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29
제4절 자료 분석 방법	30
제4장 연구 결과	31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31
제2절 기술통계치	32
제3절 탐색적 요인분석(EFA)	34
제4절 확인적 요인분석(CFA)	39
제5절 신뢰도 분석	42
제6절 타당도 분석	43
1. 수렴타당도	44
2. 변별타당도	44
3. 증분타당도	48
제5장 논의 및 제언.....	51

참고 문헌 58

부록 66

표 목 차

<표 1> 완벽주의의 구분 및 정의	12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1
<표 3>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기술통계치 ·	32
<표 4> K-CAPS의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36
<표 5> K-CAPS의 탐색적 요인분석	37
<표 6> K-CAPS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40
<표 7> K-CAPS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42
<표 8> 연구 변인 간 상관계수(수렴타당도)	46
<표 9> 연구 변인 간 상관계수(변별타당도)	47
<표 10>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	50
<표 11>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K-CAPS에서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제외)	50

그 림 목 차

<그림 1> 스크리도표	36
<그림 2> K-CAPS의 4요인 모형과 수정 4요인 모형	41

ABSTRACT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RANHEE SEO

Advisor : Prof. Na-Rae Kim, Ph. D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K-CAPS) by testing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CAP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with Korean college students. The original scale was developed by Liu, Berzenski (2022). This paper analyzed data using statistical programs SPSS 27.0 and AMOS 27.0.

First, we explained the purpose and application of the study to Berzenski, the original author, and asked for his consent for a validation study of the scale. Afterwards, the original scale was translated into Korean, and the final translated scale was completed through back-translation and proofreading by a bilingual user and evaluation of the meaning between the original scale items and the back-translated items by a native speaker. Next,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00 university students nationwide in South Korea, utilizing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K-CAPS), 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 GAD-7,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 (BTPS),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Academic Stress Scale,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 and Academic Self-Efficacy Scale. As a result of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on 200 college students,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consisted of 4 factors, the same as the original scale, and showed high reliability. The results of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ducted on another group of 200 college students indicated that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demonstrated adequate model fit. As a result of verifying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BTPS, GAD-7, CES-D, Academic Stress. Discriminant validity was verified as it showed a low level of positive correlation with MBI-SS and AICPS, and a low level of negative correlation with academic self-efficacy. As a result of conduct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incremental validity,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excluding the self-oriented academic perfectionism factor, showed a significant additional explanatory amount for anxiety and academic stress when compared to the BTPS. Through the abov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Korean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is a reliable and valid scale.

In the discussion and result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re explain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research were suggested.

Key word: perfectionism, academic perfectionism, academic stress, 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academic burnou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완벽(完璧)이란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의미로 결함이 없이 완전함을 말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결함이 없이 완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완벽을 추구한다. 실제 연세대 연구팀이 한국인 성인(20세~60세) 중 511명을 표본으로 설문한 결과, 무려 53.62%가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동귀, 손하림, 김서영, 2021). 또한 한국의 직장인 1,1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벽주의 관련 설문조사(뉴스와이어, 2014)에서 67.2%의 응답자가 ‘직장에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완벽주의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75.9%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일에 대한 노력을 멈춰야 하는 시기에 대한 질문에 ‘너무 많이 노력해서 몸에 이상 신호가 왔을 때’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로 인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몸에 이상이 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도한 경쟁 문화, 성과 중심 사회가 되어감으로 인해 더 높은 성취, 완벽함 추구 등이 당연시되고 만연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완벽한 상태를 바라는 것은 가능할지라도 사실상 완벽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완벽주의는 여러 심리적 부적응과 관련될 수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완벽함을 과도하게 추구할 경우 우울(Egan, Wage, & Shafran, 2011), 불안(Flett, Hewit, & Dyck, 1989), 스트레스(백용매, 나양수, 2001), 섭식장애(김정내, 하정희, 2006) 등을 비롯하여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Shafran, Cooper, & Fairburn, 2002). 이렇듯 완벽주의가 다양한 심리,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주목받으면서,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와 개입을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이현진, 주인석, 김명찬, 2019).

완벽주의는 그동안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어왔다. 그 중, 완벽주의 연구의 대가, Frost 등(1990)은 완벽주의를 ‘스스로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막연하게 의심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며, 타인의 기대와 평

가에 상당한 가치를 두는 경향성'으로 정의하였다(Frost, Marten, Lahart, & Rosenblate, 1990).

완벽주의 연구의 흐름을 살펴보면, 초기 완벽주의 연구는 완벽주의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Burns, 1980; Terry-Short, Owens, Slade, & Dewey, 1995).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벽주의의 긍정적인 특성을 포함하여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Frost 등(1990)의 FMPS(frost & mart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 FMPS)를 들 수 있다. FMPS는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s),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행동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s), 조직화(organization)와 같이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Frost 등(1990)은 이 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가 완벽주의의 긍정적 개인 특성과 관련됨을 주장하며,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더불어 Hewitt와 Flett(1991) 또한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접근으로 살펴보았는데, 완벽주의의 대인 관계적 측면이 적응적 어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강조하며 완벽주의 행동이 향하는 방향과 원천에 따라 하위요인을 구분하였다. 즉, 하위요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Frost 등(1990)의 FMPS, Hewitt와 Flett(1991)의 HF-MPS(hewitt & flett's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의 개발과 함께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측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후속 학자들은 기존의 FMPS와 HF-MPS를 통합하거나 새로운 요인구조를 밝히려는 시도를 취했다. 가령,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는 FMPS의 6가지 하위요인과 HF-MPS의 3가지 하위요인을 통합하여 총 9가지 하위요인들을 요인분석한 바 있으며, 분석결과, 부적응적 평가염려(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 긍정적 성취 노력(positive achievement striving)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Blankstein, Dunkley, Halsall, Williams, Winkworth(2000)도 기존 완벽주의 척도의 중복되는 부분을 고려해 재개념화하여, 적응적-부적응적 측면으로 구분하고자 하였고, 완벽주의를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on concern perfectionism),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로 새로이 구분하였다.

가장 최근 Smith, Saklofske, Stoeber와 Sherry(2016)는 Blankstein 등(2000)의 평가영역,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기반으로 한 BTPS(the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함으로써, 완벽주의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BTPS는 ‘경직된 완벽주의(rigid perfectionism)’,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elf-critical perfectionism)’, ‘자기애적 완벽주의(narcissistic perfectionism)’로 구성된다. 특히, 경직된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Smith 등(2016)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기준에 도달하였을 때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조건적인 가치승인이 문제시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경직된 완벽주의를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조건부 자기가치’라는 세부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기존 완벽주의 연구들은 완벽주의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격 특질이라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최근 완벽주의 경향이 영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Dunn, Gotwal, & Dunn, 2005; Slaney & Ashby, 1996; Stoeber & Stoeber, 2009). 국내에서도 완벽주의가 대인관계, 학업, 대학 생활 적응 등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지하는 연구들이 있었다(박현주, 1999; 송창호, 2010; 진소연, 서수균, 2014). 이러한 관점에서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개발된 완벽주의 척도로는 Shea, Slaney, Rice(2006)의 이성 관계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romantic perfectionism questionnaire), Yang과 Stoeber(2012)에 의해 개발된 외모 완벽주의 척도(physical appearance perfectionism scale), Hill, Appleton, Mallinson(2016)의 스포츠 수행 완벽주의 척도(performance perfectionism scale-sport), Wang, Kang, Lee, Sipan(2023)의 종교 완벽주의 척도(religious perfectionism scale)가 있었다. 최근에는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CAPS)가 개발되기도 하였다(Liu & Berzenski,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되었으며, 대학생에게 가장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Liu와 Berzenski(2022)의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번안하고, 통계적 분석을 거쳐 타당화 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학업 영역에서 완벽주의를 보다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학생은 대학에 다니며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므로, 학업은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강요한, 오창진, 송원영, 2020; 이설악, 양수진, 2019). 특히, 기존 초중고 시절 입시에 초점을 두고 획일적, 수동적으로 진행되었던 학습과 달리 대학에서의 학습은 주도적, 자율적인 특징이 있다(박보람, 양난미, 2012;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 다양한 부분에서 스스로 노력해야만 높은 학업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학생 989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잡코리아, 2020)에서 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취업 준비, 진로와 함께 ‘학업’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대학에서의 높은 학업성취는 미래의 취업, 진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학업이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대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은 완벽주의라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존 연구들에서도 완벽주의가 대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김경희, 권재환, 2016; 손경희, 김남희, 2018; 이자영, 양도선, 2016), 학업지연(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김경령, 서은희, 2017; 윤미현, 박효진, 주현정, 2021), 학업소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설악 등, 2019; 홍명희, 김수영, 강승희, 2020).

이와 같이 완벽주의가 학업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지면서, 완벽주의와 다양한 학업 관련 요인들 간의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반적인 완벽주의 성격을 측정하는 기존 FMPS와 HF-MPS 등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진행되어왔다. 이는 학업이라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 척도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둔 척도가 아닌 일반적인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완벽주의와 학업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송창호, 2010; Shou & Olney, 2020). 최근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에서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CAPS)가 개발되면서, 전반적인 완벽주의 측면이 아닌 ‘학업’이라는 보다 특정된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가능해지고 관련 연구가 확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CAPS 이전 국내외에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가 개발된 적도 있었다. 가령, Steed, Ley, Ence와 Jamieson(2009)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인 학업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정서적, 행동적 2요인으로 구성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를 개발하였다. 하지만, Steed 등(2009)이 밝혔듯이, 자료 분석 결과, 초기 연구 가설과 달리 행동적 요인에서의 요인구조가 타당하게 밝혀지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또한 한국에서 개발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는 이수현, 김아영(2012)의 척도가 있었다. 해당 척도는 Shafran(2001)의 모형을 참고하여 학업 수행 과정을 동기-수행-평가 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개발, 타당화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이수현 등(2012)이 개발한 척도의 경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연구가 진행된 점, 기존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완벽주의 척도와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해 학업이라는 영역에 특수화된 척도로서 차별적인 설명력이 있는지를 검증하지 못한 점 등의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Liu와 Berzenski(2022)의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는 비교적 엄정한 통계 절차에 따라서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로 검증이 되었다. 또한, 해당 척도는 완벽주의와 관련해서 최근 개발되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BTPS 구조를 토대로 개발되었다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에서도 기존 척도들의 한계점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Liu와 Berzenski의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2022)를 국내에서 번안, 타당화 한다면 대학에서 학업적 완벽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돕기 위한 상담현장 및 연구에서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번안, 타당화하고자 하는 Liu와 Berzenski(2022)의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의 개발 과정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척도 개발 초기의 가정과 실제 결과물 간의 차이가 존재하였는데, 척도 개발 초기 연구자들의 가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Liu와 Berzenski(2022)는 CAPS가 BTPS의 기본적 요인들을 반영하되 학문적 맥락을 부여하여 2가지 상위요인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하였다. 2가지 상위요인은 경직된 학업적 완벽주의(rigid academic perfectionism)와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self-critical academic perfectionism)이며, 각 상위요인들은 몇 가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었다. 먼저, 경직된 학업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은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self-oriented academic perfectionism), 학업적 조건부 자기가치(academic self-worth contingencies)로 즉, 세부 2요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았다.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행동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 학업적 자기비판(academic self-criticism),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academic perfectionism)로 즉, 세부 4요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척도 개발 결과물에 대해 설명하자면, 초기 가정과는 다르게 경직된 학업적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만이 CAPS의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는 4가지 세부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 요인이 제외되어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CAPS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와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라는 2가지 상위요인으로 구성되며,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만이 행동에 대한

의심, 학업적 자기비판,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라는 3가지 세부 하위요인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와 Berzenski(2022)의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개발 과정에서는 다른 변수와의 관련성을 토대로 타당성이 검증된 바 있는데 수렴 및 변별타당도로써 학업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 범불안장애 척도(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BTPS,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 성격 신념 질문지(personality beliefs questionnaire) 등 총 14개의 척도가 사용되었다. CAPS와 각 척도들 간의 주요 상관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학업소진, 불안, BTPS, 우울, 스트레스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효능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ES-D 척도,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범불안장애 척도, BTPS를 활용해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여,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가 전반적인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한 추가적 설명량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학업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한 것으로,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과 부정적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Liu와 Berzenski(2022)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원척도 개발 당시와 같이 척도를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취할 것이며, 척도들 간의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분은 원척도 개발 당시 타당도 검증에 사용되었던 척도들을 동일하게 사용할 예정이며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와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더욱 ‘학업’이라는 영역에 초점을 두어 검증할 수 있도록 학업 스트레스 척도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scale)로 변경하여 타당도 검증을 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 척도 개발 연구에 포함된 척도는 아니지만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간 상관성이 밝혀진 다수의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를 추가하여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와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등의 증분 타당도 검증을 통해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높게 경험하게 된다는 가설이 한국 대학생에게도 적용 가능할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대학생들이 대

학 상담센터를 내방했을 때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를 활용해 볼 수 있고, 내담자의 완벽주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적절한 개입을 실시할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완벽주의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적절한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에게 학업이 중요한 요인인 만큼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활용하여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을 낮추거나 적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할 수 있다. 더불어, 연구적으로도 학업적 완벽주의 영역에 초점화된 연구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학업 외의 또 다른 특정 영역에 초점화된 완벽주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에 힘을 실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2절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미국에서 개발된 Liu와 Berzenski(2022)의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를 번안, 타당화하여 국내 대학생들의 학업 영역에서의 완벽주의 경향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 번째, CAPS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 역번역을 실시하여 원 문항의 의미와 동일한 측정 도구를 마련한다. 두 번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번안된 척도의 요인구조를 결정한다. 세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구조의 적절성을 확인한다. 네 번째, 최종적으로 결정된 문항을 바탕으로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가 일반적 완벽주의 척도인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심리적 부적응(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지표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지를 확인하고자 증분타당도를 검증한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연구 문제 1.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요인구조를 탐색 및 확인한다.

연구 문제 2.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완벽주의

최초의 완벽주의 연구는 Hamachek(1978)가 정상적 완벽주의(normal perfectionism)와 신경증적 완벽주의(neurotic perfectionism)로 구분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완벽주의 연구는 완벽주의의 부정적이고 병리적인 개념에 초점을 두었는데, 대표적으로 Burns(1980)와 Pacht(1984)는 완벽주의를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노력하는 것, 성취를 기준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Burns(1980)와 Pacht(1984)는 완벽주의 수준이 높을 경우 자신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기 파괴적인 경향을 보이거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완벽주의의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는데, 대표적으로 Frost 등(1990)의 FMPS(frost & marten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를 들 수 있다. Frost 등(1990)은 기존 완벽주의의 정의가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완벽주의와 관련된 심리적 문제는 높은 기준의 설정보다 실수에 대한 염려와 관련된다고 설명하였다. FMPS는 개인적 기준(personal standards),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행동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 부모의 비난(parental criticism), 부모의 기대(parental expectations), 조직화(organization)와 같이 6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Frost 등(1990)은 이 중 ‘개인적 기준’과 ‘조직화’가 완벽주의의 긍정적 개인 특성과 관련됨을 주장하였다. 더불어 Hewitt와 Flett(1991) 또한 완벽주의를 다차원적 접근으로 살펴보았다. Hewitt와 Flett(1991)은 완벽주의가 개인적 요소와 사회적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았으며, 완벽주의의 대인관계적 측면을 반영하여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HF-MPS)를 개발하였다. HF-MPS는 완벽주의 행동이 향하는 방향과 원천에 따라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된다. 하위요인은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가 해당된다.

이후 완벽주의 연구는 FMPS와 HF-MPS의 하위요인들을 요인분석하여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구분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Frost 등(1993)은 부적응적 평가염려(maladaptive evaluation concern)와 긍정적 성취 노력(positive achievement striving)으로 하위요인을 구분하고 부적응적 평가염려를 부적응적 완벽주의, 긍정적 성취 노력을 적응적 완벽주의로 분류하였다. Blankstein 등(2000)도 FMPS와 HF-MPS를 요인분석하여 평가염려 완벽주의(evaluation concern perfectionism), 개인기준 완벽주의(personal standards perfectionism)로 구분하고 평가염려 완벽주의를 부적응적 완벽주의,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분류하였다.

최근 Smith 등(2016)은 Blankstein 등(2000)의 평가염려, 개인기준 완벽주의를 기반으로 한 BTPS(the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를 개발함으로써 완벽주의의 개념을 더욱 확장시켰다. BTPS는 3가지 상위요인과 10가지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상위요인인 경직된 완벽주의(rigid perfectionism)는 자기지향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와 조건부 자기가치(self-worth contingencies)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두 번째 상위요인은 자기비판적 완벽주의(self-critical perfectionism)이며, 4가지 하위요인인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행동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 자기비판(self-criticism), 사회부과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로 구성된다. 세 번째 상위요인은 자기애적 완벽주의(narcissistic perfectionism)로 4가지 하위요인인 타인지향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 혹평(hypercriticism), 특권의식(entitlement), 웅대한 자아상(grandiosity)으로 구성된다. Smith 등(2016)은 스스로 높은 기준을 세우는 것과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자신을 조건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분리하여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BTPS는 이러한 연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조건부 자기가치’를 분리하여 측정함으로써 다차원적 완벽주의에 대해 더욱 세밀한 평가가 가능해지도록 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BTPS는 완벽주의 척도들 중 유일하게 자기애적 완벽주의 경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척도화하였다. 이러한 BTPS의 장점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BTPS를 기반으로 활발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Di Fabio, Saklofske, Gori, & Svicher, 2022; Fekih-Romdhane, Sawma, Obeid, & Hallit, 2023).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 구분 및 정의된 완벽주의의 내용은 <표 1>을 통해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설명한 완벽주의 척도들은 완벽주의가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격 특성임을 전제로 개발된 것이다. 하지만 완벽주의가 전반적인 영역이 아닌 특

정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일 가능성에 관해 주장하는 연구들 또한 주목받고 있다. Stoeber 등(2009)의 연구에서는 성인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삶의 22개의 영역 중 일과 학업 영역에서 완벽주의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삶의 한 영역에서 완벽주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완벽주의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특정 영역에 따라 완벽주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연구된 바 있는데 진소연 등(2014)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진소연 등(2014)은 완벽주의의 영역에 따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82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학업 영역의 완벽주의는 심리적 안녕감의 예언 변인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 영역의 완벽주의는 주관적 안녕감의 예언 변인으로 나타나 특정 영역에서 완벽주의의 경향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지하였다.

이렇게 특정 영역에 따라 완벽주의가 나타나는 경향성이 다름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밝혀지고 있지만, 여전히 완벽주의 연구는 전반적인 영역의 완벽주의 척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 척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다. 진소연 등(2014)의 연구에서도 학업과 대인관계 영역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 척도의 부재로 인해 HF-MPS를 수정하여 연구에 적용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완벽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연구를 위해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둔 완벽주의 척도를 타당화할 필요성이 있다.

<표 1> 완벽주의의 구분 및 정의

연구자	년도	척도	구분	정의
Hamachek	1978	-	정상적 완벽주의	현실적인 기준을 세우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며, 완벽의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특징을 보임
			신경증적 완벽주의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으며 완벽의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율하지 못하는 특징을 보임
Frost, Marten, Lahart, Rosenblate	1990	FMPS	실수에 대한 염려	실수를 실패로 해석하거나 실패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 실수를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하여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
			개인적 기준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자신의 가치 평가를 위해 기준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행동에 대한 의심	자신의 수행에 대해 완벽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며 지속적으로 의심하는 것
			부모의 기대	부모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지나치게 비판적이라고 믿는 것
			부모의 비난	부모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이로 인해 부모로부터 비난 받아왔다고 지각하는 것
			조직화	질서 정연한 것, 체계적인 것을 선호하고 이를 중요시 여기는 것
Hewitt, Flett	1991	HF-MPS	자기지향 완벽주의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기준에 도달하고자 노력하는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평가하며 비난하는 것
			사회부과 완벽주의	중요한 타인이 자신에게 과도하게 높은 기준을 부여하고 완벽하기를

					기대하며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
			타인지향 완벽주의		타인에 대해 높은 기준을 세우고 타인이 완벽하기를 바라며 타인의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
Smith, Saklofske, Stoeber, Sherry	2016	BTPS	경직된 완벽 주의	자기 지향 완벽 주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
				조건부 자기 가치	자신이 부여한 완벽주의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
			자기 비판적 완벽 주의	실수에 대한 영려	스스로의 좌절이나 실패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염려하는 경향
				행동에 대한 의심	자신의 성과에 대해 불확실성을 갖는 경향
				자기 비판	성과가 완벽하지 않을 때 가혹하게 자신을 비판하는 경향
				사회 부과 완벽 주의	타인이 자신에게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
			자기 애적 완벽 주의	타인 지향 완벽 주의	타인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
				혹평	타인의 불완전함에 대해 가혹하게 평가절하하는 경향
				특권 의식	스스로를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
				웅대한 자아상	자신이 타인보다 완벽하고 우월하다고 보는 지속적인 관점

제2절 학업적 완벽주의

1. 완벽주의와 학업 관련 연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 학업지연, 학업소진 등 학업 관련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왔다. 김경희 등(2016)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벽주의와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 연구에서 타인지향,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 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반면 사이버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와 학업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이자영 등(2016)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타인지향, 사회부과 완벽주의 모두 학업 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김경희 등(2016)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Çapan(2010)의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관련 연구에서는 완벽주의와 학업지연이 정적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Çapan(2010)은 완벽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스스로의 과제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고 제출하는 것을 지연할 것으로 보았다. 국내 연구 중 계수영 등(2011)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간의 상관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학업지연에 부적영향을 미치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지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현정(2003)의 연구에서는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지연 간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다수 존재했는데, Nanda, Sugiyo, Sunawan(2022)의 연구에서는 완벽주의가 학업소진의 유의한 예측 변수이며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였다. 홍명희 등(2020)의 연구, 이설악 등(2019)의 연구에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소진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적응적 완벽주의는 학업소진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에 따라 완벽주의와의 상관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도 존재하였다(조수현, 정지현, 신호정, 2017).

이렇게 완벽주의가 다양한 학업 관련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며,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특정 영역에 초점을 둔 척도가 아닌 전반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할 경우 학업적 측면에 초점화된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 변수와의 결과를 측정할 때 더욱 많은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송창호, 2010; Shou & Olney, 2020). 하지만 CAPS는 학업적인 영역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해당 척도를 타당화하여 국내 연구에 적용한다면 학업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완벽주의의 특징과 행동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또한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 관련 변수들 간의 관련성 여부도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기존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한계

Steed 등(2009)은 부적응적 학업 완벽주의가 행동과 정서 영역을 통해 나타남을 주장하며, 부적응적 학업 완벽주의 척도(maladaptiv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MAPS)를 개발하였다. MAPS는 행동 영역과 정서 영역,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 영역은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강박적으로 노력하며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자기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 영역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우울, 불안 등과 같이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MAPS는 최초로 개발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정서와 행동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될 것을 가정했던 초기 가설과 달리 요인분석 과정에서 행동 영역이 하나의 의미 있는 요인으로 묶이지 못했다. 행동 영역은 세 가지 군집으로 나누어지면서 해당 영역의 동일성에 대한 설명력이 부족하였다. 이는 행동 영역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Steed 등(2009)은 척도 개발 당시, 완벽주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문항 개발 단계부터 한계점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MAPS의 활발한 활용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개발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는 이수현 등(2012)의 척도가 있었다. 이수현, 김아영의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는 Shafran(2001)의 이론적 모형을 근거로 개발되었다. Shafran(2001)은 완벽주의가 발현되는 과정을 높은 기준-수행-평가의 순서로 보았는데 이수현 등(2012)은 이를 기반으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를 동기-수행-평가의 하위요인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동기 과정은 자기-회피적 완벽주의, 자기-접근적 완벽주의, 타인-접근적 완벽주의라는 세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자기-회피적 완벽주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부정적 결과를 회피하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된다. 자기-접근적 완벽주의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긍정적 결과를 얻고자 하는 동기로 정의되며, 타인-접근적 완벽주의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 의해 부여된 동기로 정의된다. 수행 과정의 하위요인은 완벽주의 자기조절, 완벽주의 행동지연이 있다. 완벽주의 자기조절은 조직화, 자기통제와 같이 완벽한 수행을 하기 위한 사고와 행동을 의미한다. 완벽주의 행동지연은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사고나 행동이 지연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평가 과정은

완벽주의 가혹평가로 구성되어있다. 완벽주의 가혹평가는 자신의 수행에 대해 불만족하고, 실패, 실수를 납득하지 못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수현 등(2012)의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역시 한계점이 있었는데 먼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 기존 일반적인 영역의 완벽주의 척도와 공존타당도를 확인하지 못하여 학업 영역에 초점을 둔 척도로서의 차별적 유용성이 검증되지 못하였다는 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번안, 타당화하고자 하는 Liu와 Berzenski(2022)의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는 기존 개발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들의 한계점이 보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CAPS가 일반적 영역의 완벽주의 척도인 BTPS를 기반으로 학업적 영역에 맞춰 요인들을 재구성하여 개발되었고 엄정한 절차를 통해 타당도가 검증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CAPS가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번안, 타당화 된다면 상담 연구와 상담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

1. 척도 개발 및 요인구조

CAPS는 BTPS의 기본적 요인들을 반영하되 학문적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여 개발되었다. 척도 개발 초기의 가정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개발 초기의 가정은 경직된 학업적 완벽주의(rigid academic perfectionism)와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self-critical academic perfectionism)라는 2가지 상위요인으로 구성되며, 각 상위요인들은 몇 가지의 하위요인들로 구성되는 것이었다. 첫 번째 상위요인인 경직된 학업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은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self-oriented academic perfectionism)와 학업적 조건부 자기가치(academic self-worth contingencies)가 해당된다. 두 번째 상위요인인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은 실수에 대한 염려(concern over mistakes), 행동에 대한 의심(doubts about actions), 학업적 자기비판(academic self-criticism),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socially prescribed academic perfectionism)가 해당된다. 하지만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과정을 거치면서 요인 구조가 변경되었다. BTPS에서는 또 다른 상위요인으로 자기애적 완벽주의가 존재했지만,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에서는 제거되었다. 그 이유로 Liu와 Berzenski(2022)는 부적응적인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실제 성적과 원하는 성적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증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자기애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 때는 자신의 학업성적이 실제와 달리 높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업적 완벽주의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경직된 학업적 완벽주의의 두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만이 적합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를 독립적인 상위요인으로 보고자 하였다. 기존 학업적 조건부 자기가치 요인으로 분류될 것으로 생각되었던 문항들은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의 하위요인인 학업적 자기비판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는 기존 4가지로 구성되던 하위요인 중 실수에 대한 염려를 제외한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실수에 대한 염려 요인에 속할 것으로 판단되었던 문항들

은 학업적 자기비판 요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따라서, CAPS는 총 27문항으로 측정된다. 그 중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는 6문항으로 측정되며 학업적 완벽주의의 동기 요인으로서 '생각'을 강조하고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된다.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는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의 결과로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하위요인인 행동에 대한 의심, 학업적 자기비판,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행동에 대한 의심은 4문항으로 측정되며 자신의 성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과 걱정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된다. 학업적 자기비판은 13문항으로 측정되며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가혹한 자기비판을 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는 4문항으로 측정되며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alpha)를 살펴보면 첫 번째 상위요인인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는 .85의 신뢰도를 보였다. 두 번째 상위요인인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는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가 제시되었는데 각각 학업적 자기비판 .92, 행동에 대한 의심 .81,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73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70 이상의 신뢰도를 보여 적합한 요인구조임을 확인하였다.

2. 타당도 관련 변인

가. 학업소진

학업소진은 탈진, 무능감, 냉소라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탈진은 지나친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 무능감은 학업적 영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냉소는 학업 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 회의감을 느끼고 냉소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Schaufeli, Martinez, Pinto, Salanova, & Bakker, 2002).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는데, 방준영(2021)의 연구에서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탈진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무능감과 냉소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소진의 세 가지 하위요인 중 탈진과 냉담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무능감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수연, 이정윤(2019)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간에 상관이 없었고 하위요인인 탈진에서만 약한 정적상관을 보여 방준영(2021)의 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학업소진은 각 하위요인에 따라 완벽주의와 다양한 상관관계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에서는 학업소진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를 CAPS와의 수렴,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확인 결과 학업소진 전체는 CAPS와 낮은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업소진의 세 하위요인 중 무능감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 결과에서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무능감 요인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은 점, 학업소진 전체와도 낮은 수준의 상관을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학업소진이 학업적 완벽주의와 변별되는 개념임을 가정하였다. 이에 학업소진 척도를 변별타당도를 확인하는 척도로 선정하고자 한다.

나.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학업적 착수지연이란 과제를 시작하는 것을 미뤄 완성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학업적 완수지연이란 과제를 빠르게 시작하였지만 완성이 늦어지는 것을 의미한다(허효선, 임선영, 권석만, 2015).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를 개발한 허효선 등(2015)은 완벽주의 경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과제에 착수하는 것보다 완수하는 것을 지연할 것으로 보았고 실제 허효선 등(2015)의 연구 결과에서도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의 관계에서만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MPS의 하위요인 중 수행에 대한 의심이 학업적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수행한 결과의 완벽성에 대한 의심으로 인해 완수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의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관련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HF-MPS 척도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모두와 부적상관을 보였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모두와 정적상관을 보였다(문화진, 2023).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여겨지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모두와 부적상관을 보였다(신선임, 심은정, 2017). 신선임 등(2017)의 연구와 비슷하게 이은정(2018)의 연구에서도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모두와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업적 완수지연과 더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어떠한 하위요인으로 분류하는지에 따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의 관계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적 완벽주의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전체, 그리고 각 하위요인들과 어떠한 상관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자체는 학업적 완벽주의와 변별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변별타당도를 확인하는 척도로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될 것을 기대한다.

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란 학습자가 학업과 관련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실행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의미한다(김아영, 박인영, 2001). Burns(1980)는 완벽주의자들이 과도하게 높은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효능기대와 성공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기대가 낮아지고 이로 인해 성취감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다수의 연구가 존재하였는데, 천경희, 송영명(2012)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정적상관을 보였고, 사회부과 완벽주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수민과 양난미(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였으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경희 등(2012)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였다. 조수용, 임영진(2018)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적응적 완벽주의로 여겨지는 평가염려 완벽주의는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정, 2018; 임정섭, 박세영, 2015).

Liu와 Berzenski(2022)는 학업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이 나타날 것을 가정하며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general self-efficacy scale)를 활용하여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하지만 타당도 검증 결과 학업적 완벽주의와 자기효능감 사이의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 영역에 보다 초점을 두고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scale)로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앞서 제시한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하였을 때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사이에도 상관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학업적 완벽주의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척도로 선정하였다.

라. 심리적 부적응 (학업 스트레스, 우울, 불안)

완벽주의자는 스스로에게 과도한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한다. 하지만 너무나도 높은 이상적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 도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수행에 대한 의심, 완벽함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비판 등의 모습을 보인다(Frost et al., 1990). 이러한 완벽주의의 부정적 특성으로 인해 완벽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부정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백용매 등, 2001; Egan et al., 2011; Flett et al., 1989). 국내의 많은 연구들에서도 완벽주의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김현정, 손정락, 2006; 변석희, 김정규, 2015; 홍혜영, 1995). 대학생 시기에는 특히 학업 영역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데(박병기, 박선미, 2012),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완벽주의가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강요한 등, 2020; 김경희 등, 2016).

Liu와 Berzenski(2022)는 일반적 완벽주의 척도인 BTPS와 비교하였을 때 CAPS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얼마나 더 많은 설명력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타당도 확인 결과 CAPS가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더욱 높게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BTPS, CES-D(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 GAD-7(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perceived stress scale)를 사용하여 CAPS와의 상관분석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 절차를 참고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증분타당도와 수렴타당도 검증을 진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대학생 시기에 학업 영역에서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는 점과 완벽주의가 학업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이 밝혀진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와는 다르게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학업 스트레스 척도로 변경하여 활용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 방법

제1절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 번역 절차

본 연구는 Liu와 Berzenski(2022)에 의해 개발된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APS)를 번안, 타당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였다. 우선 원저자에게 e-mail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척도 번안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2023.02.06). 이후 연구자가 1차로 번역을 마친 후 상담심리 전공 교수의 자문을 바탕으로 초기 번역안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초기 번역안을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능숙하게 구사하며, 심리학 전공 학사와 통역, 번역 전공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이중 언어사용자에게 역 번역을 의뢰하였다. 이후에는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 간 의미의 일치성을 확인하기 위해 영어권 국적을 가지며,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검수와 수정의 절차를 의뢰하였다. 이 과정에서 원 문항과 역 번역 문항의 유사성을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여 4점 이하의 문항은 연구자가 다시 검토하고 수정한 후 상담심리 전공 교수의 확인 작업을 거쳐 최종 번역안을 완성하였다. 문항 중 대부분이 4~5점으로 평정되었으며, 5번과 24번 문항은 3점으로 평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 문항에서의 'straight A's'를 '올 A+'로 번역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 문화와 달리 한국 문화에서 A+가 가장 높은 학점을 의미함을 반영하여 번역된 문항이므로 3점으로 평정되었음에도 별도의 수정절차 없이 그대로 번역안을 적용하였다. 또한 26번 문항은 1점으로 평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원 문항에서의 'look down on'을 '무시하다'로 번역하여 ignore로 역 번역 되었기 때문이었다. look down on은 'not respect'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원어민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무시하다'에서 '알보다'로 번역을 수정하였다.

제2절 연구 대상

본 연구는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와 동일하게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은 온라인 설문업체에 의뢰하여 진행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각 200명의 인원을 임의 배분할 것을 가정하고 총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배병렬, 2007). 설문조사 진행에 앞서 설문의 목적과 비밀보장에 대해 안내하고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제3절 측정 도구

1.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CAPS)

Liu와 Berzenski(2022)가 대학생들이 학업적 영역에서 나타내는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라는 2가지 상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자기비판 학업적 완벽주의는 3가지 하위요인으로 구분되는데 행동에 대한 의심, 학업적 자기비판,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문항 수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6문항, 행동에 대한 의심 4문항, 학업적 자기비판 13문항,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중 1번, 8번, 19번 문항은 역 채점된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부터 6점(매우 동의한다)까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주의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85, 행동에 대한 의심 .81, 학업적 자기비판 .92,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7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88, 행동에 대한 의심 .84, 학업적 자기비판 .90,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90으로 나타났다.

2. 불안 척도 (GAD-7)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tzer, Kroenke, Williams, Lowe(2006)가 개발하고 서종근(2015)이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근 2주 동안 응답자가 불안과 걱정으로 인해 경험한 문제에 대해 측정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 방식은 0점(전혀 방해받지 않는다)부터 3점(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방해받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종근(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93으로 나타났다.

3. 학업소진 척도 (MBI-SS)

학업소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chaufeli 등(2002)에 의해 개발된 학업소진 척도(maslach burnout inventory—student survey: MBI-SS)를 Shin, Puig, Lee, Lee, Lee(2011)가 번안,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업소진 척도는 탈진, 무능감, 냉소라는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총 문항 수는 15문항이며 하위요인별로 탈진 5문항, 무능감 6문항, 냉소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무능감에 해당하는 10번~15번까지의 문항은 역 채점된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소진 정도가 강함을 의미한다. 기존 Shin 등(2011)의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탈진 .86, 무능감 .82, 냉소 .8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탈진 .87, 무능감 .83, 냉소 .87로 나타났다.

4. BTPS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

다차원적 완벽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Smith 등(2016)이 개발하고 이한나(2018)가 번안, 타당화한 BTPS를 사용하였다. BTPS는 3가지 상위요인과 8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상위요인인 경직된 완벽주의는 2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조건부 자기가치와 자기지향 완벽주의가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 상위요인인 자기비판 완벽주의는 자기비판,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 사회부과 완벽주의를 하위요인으로 갖는다. 마지막 상위요인인 자기애적 완벽주의는 타인지향 완벽주의, 특권의식을 하위요인으로 갖는다. 전체 문항 수는 41문항이며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조건부 자기가치 4문항, 자기지향 완벽주의 5문항, 실수에 대한 염려, 행동에 대한 의심이 각각 5문항, 자기비판,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각각 4문항, 타인지향 완벽주의 9문항, 특권의식 5문항으로 구성된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서의 완벽주의 경향이 강함을 의미한다. 이한나(2018)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5. 축약형 CES-D 척도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 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Berkman, Kohout, Evans, Cornoni-Huntley(1993)가 단축한 축약형 CES-D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축약형 CES-D 척도는 복지실태조사(가구원용)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2015)에 의해 모든 연령과 성별에서 측정 불변성이 검증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만세 등(2015)에 의해 측정 불변성이 검증된 한국판 축약형 CES-D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축약형 CES-D 척도는 일주일간 경험한 우울 증상의 정도를 측정하며 응답 방식은 0점(거의 드물게)부터 3점(대부분)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번, 7번 문항은 역 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Kohout 등(1993)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6. 학업 스트레스 척도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2000)이 개발한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revised life stress scale for college students; RLSS-CS)를 사용하고자 한다.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는 '대인관계' 및 '당면과제'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8가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하위요인은 이성과의 관계, 교수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장래 문제, 경제 문제, 가치관 문제, 학업 문제에 해당한다. 전체 문항 수는 50문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학업 스트레스를 측정하고자 하므로 하위요인 중 학업 문제에 해당하는 7개의 문항만을 사용하고자 한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없었다)부터 4점(매우 자주 있었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문제에 해당하는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경구 등(2000)의 연구에서 학업 문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6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87로 나타났다.

7.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대학생들의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허효선 등(2015)이 개발한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academic initiation-completion procrastination scale: AICPS)를 사용하고자 한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는 학업적 착수지연(11문항)과 학업적 완수지연(7문항)이라는 두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매우 그렇다)까지 5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지연 행동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허효선 등(2015)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8.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김아영과 박인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고자 한다.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는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 자신감이라는 3가지 하위요인을 가지고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수는 과제 난이도 선호 10문항, 자기조절 효능감 10문항,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8문항이다. 응답 방식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6점(매우 그렇다)까지 6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며, 2, 3, 6, 7, 21, 22, 23, 24, 25, 26, 27, 28번은 역채점 문항에 해당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아영 등(2001)의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 신뢰도 계수는 .89로 나타났다.

제4절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남녀 대학생 400명의 자료를 수집하여 SPSS 27.0과 AMOS 27.0을 사용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SPSS 27.0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의 인구 통계학적 정보 분석 및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 척도의 내적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임의 분할한 200명의 자료를 토대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다음으로 다른 200명의 자료를 토대로 AMOS 27.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과정에서 적합도 지수로 카이제곱값, RMSEA, CFI, TLI, SRMR 값을 확인함으로써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결정된 요인구조가 적절한지를 확인하였다. 이후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불안, 학업소진, BTPS, 우울,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증분타당도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인 BTPS와 비교하였을 때,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가 불안, 우울,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더 많은 설명량을 갖는지를 확인하였다.

제4장 연구 결과

제1절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총 400명으로, 남녀 각 200명이었다. 지역은 서울 및 경기가 249명(62.3%)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도 74명(18.5%), 충청도 39명(9.8%), 전라도 32명(8%), 강원도와 제주는 각 3명(0.7%)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학년을 살펴보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는 각 96명으로 24% 비율이며, 5학년 이상의 경우 16명으로 4%에 해당하였다. 전공은 이학 및 공학 계열이 158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인문 및 사회 계열이 126명(31.5%), 의료보건 계열이 54명(13.5%), 예술 및 체육 계열이 26명(6.5%), 교육 계열이 20명(5.0%), 기타가 13명(3.3%), 서비스 계열이 3명(0.7%)으로 나타났다.

<표 2>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400)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200	50
	여성	200	50
지역	서울 및 경기	249	62.3
	경상도	74	18.5
	충청도	39	9.8
	전라도	32	8
	강원도	3	0.7
	제주	3	0.7
학년	1학년	96	24
	2학년	96	24
	3학년	96	24
	4학년	96	24
	5학년 이상	16	4
전공	이학 및 공학	158	39.5
	인문 및 사회	126	31.5
	의료보건	54	13.5
	예술 및 체육	26	6.5
	교육	20	5.0
	기타	13	3.3
	서비스	3	0.7

제2절 기술통계치

요인분석 실시 전 문항이 양호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조사 대상자를 바탕으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항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기술통계치 내용은 <표 3>과 같다. 분석은 SPSS 27.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각 문항의 평균 점수 범위는 2.32에서 4.70, 표준편차의 범위는 .932에서 1.456으로 나타나 각 문항의 평균이 극단치에 속하지 않았고 표준편차 역시 .7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각 문항이 양호함을 확인하였다(탁진국, 2007). 문항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왜도(skewness)가 절댓값 2보다 작고, 첨도(kurtosis)가 절댓값 7보다 작으므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Curran, West, & Finch, 1996).

<표 3>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의 기술통계치

(n=400)				
문항번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4.27	1.402	-.674	-.557
2	4.70	1.105	-1.013	1.043
3	4.51	1.043	-.793	.612
4	4.61	.932	-.666	.790
5	4.54	1.370	-.820	-.050
6	4.56	1.116	-.862	.541
7	3.33	1.439	.062	-.916
8	3.07	1.183	.129	-.533
9	3.55	1.271	-.379	-.634
10	3.35	1.314	-.054	-.683
11	4.22	1.356	-.800	.033
12	4.09	1.325	-.747	-.037
13	3.50	1.386	-.123	-.813
14	4.10	1.166	-.853	.514

15	3.55	1.285	-.050	-.509
16	3.85	1.332	-.398	-.575
17	3.67	1.401	-.306	-.753
18	3.40	1.391	-.061	-.828
19	3.65	1.216	-.121	-.518
20	2.72	1.334	.391	-.707
21	3.44	1.377	-.201	-.799
22	3.14	1.344	.070	-.851
23	3.46	1.358	-.247	-.787
24	2.32	1.375	.838	-.292
25	2.69	1.400	.377	-.899
26	2.52	1.456	.702	-.520
27	2.58	1.456	.546	-.678

제3절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구성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전 400명의 자료를 각각 200명씩 무선할당하여 표본 1과 2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무선할당 방식은 객관적인 요인구조 파악에 도움을 준다(Pérez-Rojo, Martín, Noriega, & López, 2018). 표본 1의 자료를 통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표본 2의 자료를 통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위해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우선, 수집된 자료가 요인분석에 적절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KMO(Kaiser-Meyer-Olkin Measure) 표준 적합도 검증과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KMO 적합성 지수는 .910, Bartlett 검정치는 $\chi^2(276)=3219.377$, $p < .001$ 로 나타나 요인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하였다(Bartlett, 1950; Kaiser, 1974). Kaiser(1974)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KMO 적합성 지수가 .90 이상인 경우,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본다.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의 경우 유의확률이 .001 미만인 경우 수집된 자료의 상관이 단위행렬이라는 영가설을 기각하여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DeVellis & Thorpe, 2021). 분석 방법으로는 원척도 논문에서 적용된 방법을 참고하여 주축요인방식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프로맥스 회전방식을 적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요인 수를 결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고유값, 스크리도표, 누적분산비율이 이에 해당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과 원척도의 요인 수를 함께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먼저 Kaiser(1960)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 수를 살펴보았을 때 6요인 구조까지 고유값 1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스크리도표 상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요인 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5요인 이후로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형태를 보여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직전인 4요인 구조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Hayton, Allen, & Scarpello, 2004). 누적분산 비율은 적어도 50~60% 이상인 요인 수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선행연구의 기준에 따르면 3요인~6요인까지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Hair, Anderson, Tatham, & Black, 2009). 먼저 제시된 6요인의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6번째 요인이 하나의 문항만으로 구성되었다. 김수영(2016)은 모형 추정의 정확성을 고려하였을 때 하나의 요인당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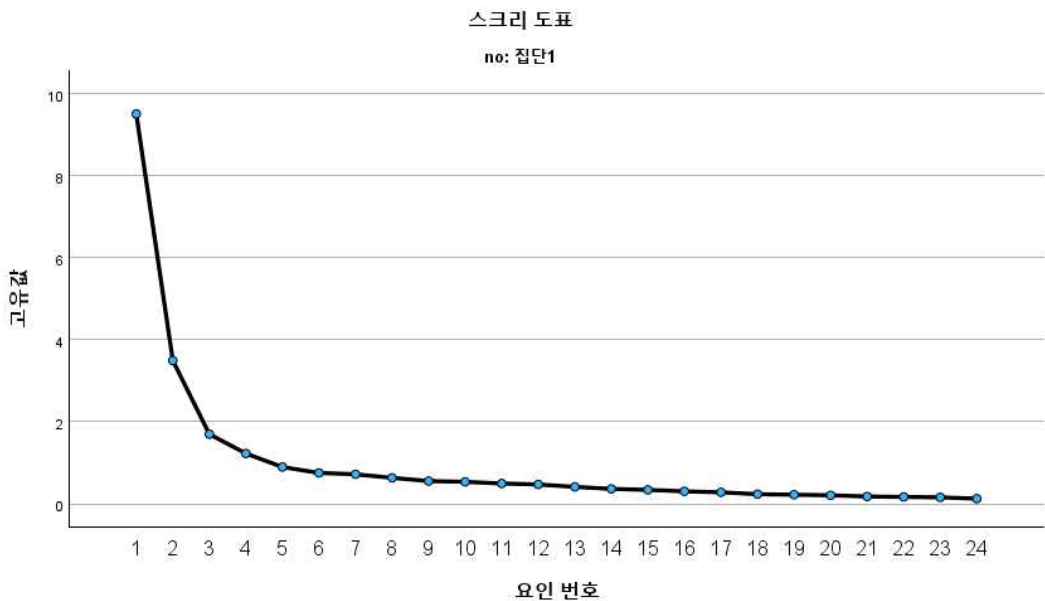
소 3개 이상의 문항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6요인 구조는 제외하고 요인 수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후 4요인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고유값과 스크리도표, 누적분산비율 등 모든 기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 원척도의 요인 수 역시 4요인에 해당함을 고려하여 최종 요인 수를 4요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공통성, 요인부하량 기준 적합 여부, 연구자의 판단과 해석의 용이성,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먼저 공통성 .30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신희건, 2013) 문항 8번이 .089, 문항 19번이 .148의 값을 보여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요인부하량 역시 .30 이상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Crocker & Algina, 1986) 문항 9번이 .271의 값을 보여 적합하지 않아 삭제하였다. 문항 8번, 9번, 19번을 제외 후 다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모든 문항이 공통성과 요인부하량 기준을 충족하였다. 원척도에서 학업적 자기비판 요인으로 분류되었던 20번 문항은 본 논문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사회부와 학업적 완벽주의의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사회부와 학업적 완벽주의의 요인과 학업적 자기비판 요인의 부하량의 차이가 .10 이하로 낮아 교차 부하 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석의 용이성과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회부와 학업적 완벽주의의 요인이 아닌 학업적 자기비판 요인의 문항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K-CAPS의 요인구조를 총 24 문항, 4요인으로 확정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표 5>에 제시하였다.

각 하위요인을 원척도의 요인구조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요인 1은 총 4문항으로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원척도에서 요인 4인 ‘socially prescribed academic perfectionism’에 해당하며 원척도 문항 구성과 동일하게 24번, 25번, 26번, 27번 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원척도 요인 명을 참고하여 ‘사회부와 학업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총 6문항에 해당하며 학업적 완벽주의의 동기 요인으로서 ‘생각’을 강조하고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한다. 원척도에서 요인 1인 ‘self-oriented academic perfectionism’에 해당하며 원척도 문항 구성과 동일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따라서 원척도 요인 명을 참고하여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총 10문항으로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가혹한 자기비판을 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이는 원척도에서 요인 2인 ‘academic self-criticism’에 해당하며 원척도 문항 구성에서 8번, 9번, 19번을 제외한 7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20번, 21번, 22번, 23번 문항이 포함되었다. 제외한 문항들 이외의 문항들은 모두

원척도 문항 구성과 같았으므로 원척도의 요인 명을 참고하여 ‘학업적 자기비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 4는 총 4문항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과 걱정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원척도에서 요인 3인 ‘doubts about actions’에 해당하며 원척도 문항 구성과 동일하게 15번, 16번, 17번, 18번 문항이 모두 포함되었다. 이에 원척도의 요인 명을 참고하여 ‘행동에 대한 의심’으로 명명하였다.

<표 4> K-CAPS의 KMO와 Bartlett 검정 결과

표준형성 적절성의 Kaiser-Meyer-Olkin 측도		.910
근사 카이제곱(Approx χ^2)		3219.37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자유도(df)	276
	유의확률(p)	< .001



<그림 1> 스크리도표

<표 5> K-CAPS의 탐색적 요인분석

(n=200)

문항	공통성	요인1	요인2	요인3	요인4
27. 내가 시험에서 완벽하지 못하면 동기들은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732	.964	-.054	-.176	.025
26. 내가 학교에서 완벽한 성적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은 나를 알볼 것이다.	.705	.938	.039	-.223	.062
24.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올 A+를 받지 못하면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550	.786	.017	-.088	.017
25. 내가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교수님들은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643	.775	-.046	-.045	.122
6. 나는 시험에서 최대한 완벽한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760	-.059	.847	.125	-.130
5. 나는 학교에서 올 A+ 성적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775	.026	.824	.115	-.038
3. 나는 학교 과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643	.090	.809	-.061	-.049
2. 나는 학교에서 완벽한 성적을 받고 싶다.	.699	.010	.803	-.041	.189
4. 나는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선시한다.	.537	.041	.754	-.084	.007
1. 학교 과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301	-.186	.577	-.117	.160
11. 만약 내가 시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화가 난다.	.493	-.288	.042	.853	-.011
23. 과제에서 나의 수행이 완벽하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723	.056	.018	.758	.073
12. 만약 내가 학교 과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477	-.161	-.062	.753	.101

22. 나는 시험에서 나의 수행에 결함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다.	.704	.377	-.049	.621	-.115
14. 학교 과제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는 나를 속상하게 한다.	.453	-.168	-.023	.603	.266
21. 나는 교수님이 나의 실수를 지적하면 나 자신에게 실망한다.	.621	.255	-.169	.556	.130
13. 나는 학교 과제에서 감정을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534	.167	.039	.521	.106
20. 나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한다.	.623	.505	-.016	.427	-.113
10. 내가 학업적 수행에서 완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다.	.447	.376	.136	.392	-.211
7. 내가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할 때, 나의 자존감이 손상된다.	.590	.227	.332	.357	.062
16. 나는 학교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주 걱정한다.	.666	-.024	.074	.067	.771
17. 나는 내가 교수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635	.116	.149	.037	.664
15. 나는 시험을 친 직후, 거의 항상 내 수행에 대해 확신이 없다.	.525	.065	-.036	.118	.619
18. 나는 내가 수업에서 얼마나 잘하든 상관없이 나의 학업 능력에 대해 의심한다.	.519	.239	-.185	.268	.381
아이겐값(eigenvalue)	9.51	3.49	1.70	1.23	
공통분산(%)	39.60	14.55	7.08	5.11	
누적분산(%)	39.60	54.16	61.23	66.34	

제4절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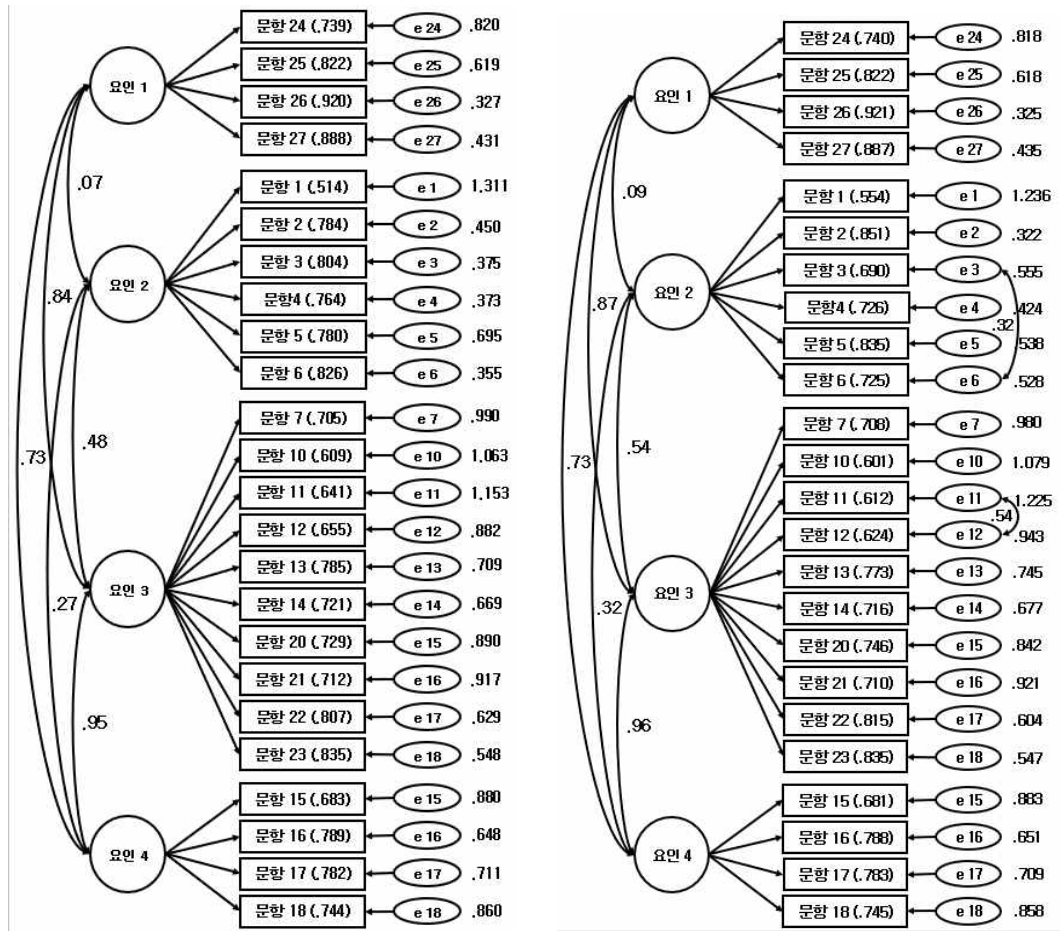
앞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K-CAPS를 24문항, 4요인 구조로 가정하였다. 연구자가 가정한 요인구조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무선 분할한 표본 2의 200명의 자료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추정 방법으로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사용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2 , CFI, TLI, RMSEA, SRMR 값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hi^2 = 756.682(p < .001)$, TLI = .823, CFI = .843, RMSEA = .102, SRMR = .0875로 4요인 구조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정지표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였을 때 측정오차 간 상관을 가정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임혜선, 김정윤, 홍혜영, 2023). 수정지표를 확인하였을 때 11번(“만약 내가 시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화가 난다.”)과 12번(“만약 내가 학교 과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문항이 47.53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문항 모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3번(“나는 학교 과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과 6번(“나는 시험에서 최대한 완벽한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문항이 44.95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두 문항 모두 완벽한 점수 또는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해당 문항들의 의미의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각각 공분산을 연결해주었다. 수정 모형의 적합도는 $\chi^2 = 640.862(p < .001)$, TLI = .862, CFI = .878, RMSEA = .090, SRMR = .0842로 나타났다. TLI와 CFI는 일반적으로 .90 이상일 때 좋은 수준으로 보지만, .80 이상인 경우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여겨진다(Browne & Cudeck, 1993; Hair et al., 2009). RMSEA와 SRMR은 .50~.80의 값을 가질 때 적합한 수준으로 보지만(Hu & Bentler, 1999), .10까지도 수용한다는 선행연구가 있었다(Browne & Cudeck, 1993).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수정 4요인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수정 4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으며,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또한 수정 4요인 구조 모형의 표준화 회귀계수 추정치를 확인하였을 때, 모든 문항의 추정치가 .50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에서 원칙도의 모형 적합도는 27문항을 4요인으로 하였을 때, $\chi^2 = 878.388(p < .001)$, CFI = .83, RMSEA = .08, SRMR = .08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TLI 값은 제시하지 않았다.

<표 6> K-CAPS의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적합도

(n=200)

	χ^2	DF	TLI	CFI	RMSEA (LO90 HI90)	SRMR
4요인	756.682	246	.823	.843	.102	.0875
수정 4요인	640.862	244	.862	.878	.090	.0842



<그림 2> K-CAPS의 4요인 모형과 수정 4요인 모형

제5절 신뢰도 분석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체 문항과 하위요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 ~ .9이면 우수한 수준으로 판단하는데, K-CAPS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으로 나타났다(Devellis & Thorpe, 2021). 하위요인의 신뢰도 계수를 살펴보면,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는 .91, 자가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는 .87, 학업적 자기비판은 .92, 행동에 대한 의심은 .84로 나타나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를 보였다.

<표 7> K-CAPS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n=200)

요인	문항 번호	문항 수	Cronbach's alpha
전체	전체 문항	24	.93
사회부과 학업	24, 25, 26, 27	4	.91
자가지향 학업	1, 2, 3, 4, 5, 6	6	.87
학업 자기비판	7, 10, 11, 12, 13, 14, 20, 21, 22, 23	10	.92
행동 의심	15, 16, 17, 18	4	.84

제6절 타당도 분석

원척도 논문에서는 타당도 분석을 위해 관련 척도들과의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그리고 증분타당도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원척도 논문의 타당도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증분타당도를 살펴보려고 한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선정된 척도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원척도 논문에서는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BTPS,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학업소진, 자기효능감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원척도 논문과 동일하게 BTPS, 우울, 불안을 변수로 선정하였고, 보다 학업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두어 검증하기 위해 원척도 연구에서 선정된 스트레스 변수를 학업 스트레스로 변경하였다.

원척도 논문에서는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무능감 변수를 선정하였다. 원척도 논문의 상관분석 결과, 학업소진 전체와도 매우 낮은 수준($r = .154, p < .01$)의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를 보여 본 논문에서는 학업소진 자체를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원척도 논문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수를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으나, 상관관계 분석 결과 CAPS와 자기효능감 사이에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 변수를 학업에 초점을 둔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수로 변경하고 K-CAPS와 변별된 개념을 측정한다고 가정하여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추가로 선행연구를 통해 완벽주의 경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변수가 학업적 완벽주의와는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변수는 학업과 관련된 부분을 측정한다는 점에서는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와 유사점이 있지만 이론적 개념에 있어 학업적 완벽주의와 변별되기 때문에 변별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증분타당도의 경우 원척도에서는 CAPS가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우울, 불안, 스트레스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력을 지니는지를 살펴보곤 바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도 동일하게 K-CAPS가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우울, 불안 변수를 추가적으로 설명하는지 살펴보고 스트레스 변수는 학업 스트레스 변수로 변경하여 증분타당도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1. 수렴타당도

K-CAPS의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BTPS, 불안, 우울, 학업 스트레스 변수와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표 8>에 제시하였다. K-CAPS는 BTPS 전체와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732, p < .001$). BTPS의 하위요인 각각에 대해서도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K-CAPS 전체와 우울($r = .333, p < .001$), 불안($r = .443, p < .001$), 학업 스트레스($r = .341, p < .001$) 모두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종합해보면, 상관관계 결과를 통해 K-CAPS와 유사하게 ‘완벽주의’라는 개념을 측정하는 BTPS와의 상관 정도가 가장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와도 유의한 중간 수준의 상관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불안, 우울, 학업 스트레스 정도가 상승한다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김경희 등, 2016; 백용매 등, 2001). 따라서 K-CAPS의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다고 보았다. 즉, K-CAPS는 BTPS, 불안, 우울, 학업 스트레스와 관련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2. 변별타당도

K-CAPS의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학업소진,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표 9>에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K-CAPS와 학업소진 전체는 낮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215, p < .001$).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냉소($r = .154, p < .01$)와 무능감($r = -.137, p < .01$)과도 각각 유의한 정적상관과 부적상관을 보였으나, 매우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과는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r = .454, p < .001$)을 나타내어 부분적으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K-CAPS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전체와의 상관분석 결과, 매우 낮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 = .149, p < .01$). 하위요인인 학업적 완수지연과도 정적상관($r = .276, p < .001$)을 보였으나, 상관 정도가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고, 학업적 착수지연과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아($r = .055, p = .275$)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K-CAPS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와의 상관분석 결과, 낮은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217, p < .001$). 하위요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r = -.031, p = .540$), 자기조절 효능감($r =$

.087, $p = .083$)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중
간 수준($r = -.482$, $p < .001$)의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여 부분적으로 변별타당도
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K-CAPS와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을 제외한 학업소진 전체, 냉소, 무능감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전체, 학업적 착수
지연, 학업적 완수지연과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혹은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
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하위요인인 자신감 요인
을 제외한 자기효능감 전체,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없
거나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K-CAPS는 학업소진,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변별되는 개념
이라고 볼 수 있다.

<표 8> 연구 변인 간 상관계수(수렴타당도)

(n=400)

	1	1-1	1-2	1-3	1-4	2	2-1	2-2	2-3	3	4	5
1. K-CAPS	1											
1-1. 자기지향학습완벽	.578***	1										
1-2. 학업적자기비판	.941***	.429***	1									
1-3. 행동에대한의심	.774**	.220***	.684***	1								
1-4. 사회부과학습완벽	.721***	.110*	.615***	.544***	1							
2. BTPS	.732***	.273***	.695***	.607***	.646***	1						
2-1. 경직된완벽주의	.660***	.433***	.633***	.436***	.462***	.820***	1					
2-2. 자기비판완벽주의	.703***	.196***	.684***	.700***	.555***	.888***	.631***	1				
2-3. 자기애적완벽주의	.487***	.137**	.436***	.331***	.597***	.815***	.567***	.519***	1			
3. 우울	.333***	-.013	.312***	.366***	.377***	.491***	.286***	.556***	.326***	1		
4. 불안	.443***	.078	.441***	.445***	.378***	.528***	.325***	.629***	.299***	.733***	1	
5. 학업스트레스	.341***	.046	.335***	.390***	.275***	.380***	.277***	.436***	.208***	.397***	.396***	1

* $p < .05$, ** $p < .01$, *** $p < .001$

<표 9> 연구 변인 간 상관계수(변별타당도)

(n=400)

	1	1-1	1-2	1-3	1-4	2	2-1	2-2	2-3	3	3-1	3-2	3-3	4	4-1	4-2
1.K-CAPS	1															
1-1.자기지향학습	.578***	1														
1-2.학습자기비판	.941***	.429***	1													
1-3.행동에대한의심	.774***	.220***	.684***	1												
1-4.사회부과학습	.721***	.110*	.615***	.544***	1											
2.학습소진	.215***	-.282***	.248***	.379***	.325***	1										
2-1.탈진	.454***	.024	.458***	.486***	.412***	.740***	1									
2-2.냉소	.154**	-.264***	.176***	.269***	.310***	.864***	.510***	1								
2-3.무능감	-.137**	-.429***	-.084	.102*	.014	.704***	.161**	.492***	1							
3.학습자기효능감	-.217***	.188***	-.219***	-.443***	-.230***	-.618***	-.407***	-.457***	-.566***	1						
3-1.과제난이도선호	-.031	.065	-.036	-.137**	.002	-.338***	-.223***	-.245***	-.315***	.735***	1					
3-2.자기조절효능감	.087	.379***	.064	-.159**	-.067	-.391***	-.054	-.276***	-.590***	.656***	.274***	1				
3-3.자신감	-.482***	-.033	-.460***	-.604***	-.403***	-.541***	-.541***	-.416***	-.280***	.663***	.207***	.132**	1			
4.학습적착수완수	.149**	-.159**	.153**	.270***	.216***	.376***	.263***	.349***	.256***	-.332***	-.074	-.218***	-.392***	1		
4-1.학습착수지연	.055	-.192***	.077	.170**	.124*	.354***	.192***	.341***	.288***	-.292***	-.083	-.213***	-.308***	.951***	1	
4-2.학습완수지연	.276***	-.063	.248***	.380***	.323***	.323***	.323***	.278***	.138**	-.320***	-.042	-.174***	-.442***	.843***	.635***	1

* $p < .05$, ** $p < .01$, *** $p < .001$

3. 증분타당도

한국판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K-CAPS)가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추가적인 설명량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수에 각각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를 투입하고 독립변수에 1단계로 BTPS를, 2단계로 K-CAPS를 순차적으로 투입하였다.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를 종속변수로 한 모든 회귀분석 결과의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근사한 값을 보여 잔차의 독립성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분산팽창지수(VIF)도 모두 10 미만으로 작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세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에 우울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1단계($F=126.40, p < .001$)와 2단계($F=63.54,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K-CAPS가 2단계에 투입되었을 때 0.1%의 설명량 상승이 있었지만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 = -.869, p = .385$). 종속변수에 불안을 투입한 회귀분석 결과도 우울과 동일하게 회귀모형은 1단계($F=153.88, p < .001$)와 2단계($F=79.38, p < .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K-CAPS가 2단계에 투입되었을 때 나타난 0.7%의 설명량 상승 값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948, p = .052$). 마지막으로 종속변수에 학업 스트레스를 투입한 결과 회귀모형에서 1단계($F=67.29, p < .001$)와 2단계($F=35.90, p < .001$)에 모두 유의하였고, K-CAPS 투입 시 설명량 상승 값(0.9%)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 = 1.999, p < .05$).

이상의 결과는 원척도의 증분타당도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데, 원척도에서는 K-CAPS가 BTPS 이상으로 우울, 불안,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원척도와 본 연구 결과가 달랐던 이유에 대해 분석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표 8>에 제시되어 있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K-CAPS의 하위요인 중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와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K-CAPS가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변수에 대해 갖는 설명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각 하위요인별 설문 응답자들의 각 문항에 대한 평균 값을 살펴보면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가 4.57로 행동에 대한 의심 3.58, 학업적 자기비판 3.55,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2.54와 비교하였을 때

월등히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는 설문 응답자들이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을 가장 높게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응답자들의 K-CAPS 전체 문항에 대한 각 문항의 평균 값은 3.64에 해당하였다.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는 학업적 완벽주의의 동기 요인으로서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로 정의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 자체는 적응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Hewitt et al., 1991). 이한나(2018)의 연구에서도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K-CAPS에서 비교적 긍정적 경향성을 나타내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를 제외하고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행동에 대한 의심, 학업적 자기비판 하위요인과 BTPS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설명량을 갖는지 확인하였다. 세부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을 제외 후 종속변수에 각각 불안($\Delta R^2 = .017$, $p < .01$), 학업 스트레스($\Delta R^2 = .019$, $p < .01$)를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에서 K-CAPS가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추가적 설명량을 보였다. 종속변수에 우울($\Delta R^2 = .001$, $p = .533$)을 투입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는 K-CAPS가 유의한 추가적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과 의미는 논의 파트에서 더욱 상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을 제외한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 학업적 자기비판, 행동에 대한 의심 요인과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변수와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 변수에는 K-CAPS가 유의한 추가적 설명량을 보여 증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10>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n=400)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2	ΔR^2	F	β	t
우울	1단계	BTPS	.241	.001	126.40***	.491	11.243***
	2단계	K-CAPS	.242		63.54***	-.056	-.869
불안	1단계	BTPS	.279	.007	153.88***	.528	12.405***
	2단계	K-CAPS	.286		79.38***	.121	1.948
학업 스트레스	1단계	BTPS	.145	.009*	67.29***	.380	8.203***
	2단계	K-CAPS	.153		35.90***	.135	1.999*

* $p < .05$, ** $p < .01$, *** $p < .001$

<표 11>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K-CAPS에서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제외)

(n=400)

종속 변인	독립 변인		R^2	ΔR^2	F	β	t
우울	1단계	BTPS	.241	.001	126.40***	.491	11.243***
	2단계	K-CAPS	.242		63.30***	.042	.624
불안	1단계	BTPS	.279	.017**	153.88***	.528	12.405***
	2단계	K-CAPS	.296		83.52***	.201	3.126**
학업 스트레스	1단계	BTPS	.145	.019**	67.29***	.380	8.203***
	2단계	K-CAPS	.164		38.94***	.212	3.032**

* $p < .05$, ** $p < .01$, *** $p < .001$

제5장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Liu와 Berzenski(2022)가 개발한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CAPS) 27문항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친 후 신뢰도 분석,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증분타당도 검증을 거쳐 타당화하여 K-CAPS가 국내 대학생들의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400명을 표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선헌당한 200명의 표본 1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요인부하량과 공통성이 낮게 나타난 3개의 문항(8번, 9번, 19번)을 제외하여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고유치 값, 스크리도표, 누적분산 비율 기준을 모두 충족한 요인구조는 원척도와 동일한 4요인 구조로 확인되었다. 요인 1은 4문항으로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사회적 압력을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사회부과 학업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6문항으로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측정하며,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10문항으로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가혹한 자기비판을 하는 경향을 측정하며, ‘학업적 자기비판’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요인 4는 4문항으로 자신의 성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과 걱정을 나타내는 경향을 측정하며, ‘행동에 대한 의심’으로 명명하였다. 각 하위요인의 문항 내용은 원척도와 동일하게 구성되었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4요인 구조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선헌당한 200명의 표본 2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TLI = .823$, $CFI = .843$, $RMSEA = .102$, $SRMR = .0875$ 로 나타나 $RMSEA$ 값이 적절하지 않았다. 이후 수정 지표를 확인하여 의미의 유사성이 높은 문항들을 공분산 연결하였다. 공분산을 연결한 문항에는 3번(“나는 학교 과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과 6번 문항(“나는 시험에서 최대한 완벽한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이 해당되었는데, 두 문항 모두 ‘완벽한 점수, 성적을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의 유사성이 있었다. 또한 11번(“만약 내가 시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화가 난다.”)과 12번 문항(“만약 내가 학교 과제에

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도 공분산을 연결하였는데 두 문항 모두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의미의 유사성이 있었다. 공분산 연결 후 수정된 4요인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문항의 요인부하량이 .5 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하였고, 모형 적합도 역시 TLI = .862, CFI = .878, RMSEA = .090, SRMR = .0842로 나타나 적절하였다. 이에 수정 4요인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셋째, K-CAPS의 신뢰도 확인을 위해 문항 전체와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문항 전체와 각 하위요인의 내적 합치도 수치가 모두 .80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좋은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탁진국, 2007). 이에 K-CAPS가 국내 대학생들의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을 일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본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증분타당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수렴타당도 검증을 위해 K-CAPS와 BTPS,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와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K-CAPS는 BTPS 전체, 하위요인 모두와 중간 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K-CAPS와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변수 모두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K-CAPS와 유사하게 ‘완벽주의’를 측정하는 BTPS와 높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인 점과 선행연구를 통해 완벽주의와 상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던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 변수 모두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바탕으로 수렴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변별타당도 검증을 위해 K-CAPS와 학업소진,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K-CAPS는 학업소진 전체와 하위요인인 냉소, 무능감과 낮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하지만 하위요인인 탈진과는 중간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여, 부분적으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탈진이란 지나친 학업성취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주변의 기대감을 압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자신의 수행이나 능력을 의심하고 심할 경우 자기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탈진과 정적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CAPS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과의 상관분석 결과,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전체, 학업적 완수지연과 낮은 수준의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고, 학업적 착수지연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아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다.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를 개발한 허효선 등(2015)의 선행연구에서는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자신이 수행한 결과의 완벽성에 대한 의심이 상승하여 완벽주의와 학업적 완수지연이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결과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 K-CAPS와 학업적 착수지연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적 완수지연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허효선 등(2015)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였지만, K-CAPS와 학업적 완수지연 간의 상관 정도는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다. K-CAPS의 하위요인과 학업적 완수지연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행동에 대한 의심 요인과 학업적 완수지연이 중간 수준의 정적상관을 보여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수행 결과에 대한 의심이 상승하게 된다는 허효선 등(2015)의 가설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CAPS와 학업적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분석 결과 학업적 자기효능감 전체와는 낮은 수준의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인 과제 난이도 선호, 자기조절 효능감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다른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중간 수준의 부적상관을 보여 부분적으로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신감이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 능력에 대해 갖는 확신이나 신념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수행이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비판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자신감이 하락하는 것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았다. 종합해보면 K-CAPS는 학업소진의 하위요인 중 탈진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낮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전체와 하위요인 모두에 대해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변수에 대해서도 하위요인인 자신감을 제외한 모든 요인과의 상관관계에서 상관이 나타나지 않거나 낮은 수준의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변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K-CAPS가 BTPS와 비교하였을 때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해 추가적 설명량을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증분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K-CAPS는 BTPS를 통제하였을 때 우울, 불안에 대해서는 유의한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고, 학업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추가적 설명량(0.9%)을 보였으나 그 값이 매우 작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K-CAPS에서 비교적 긍정적 의미를 갖는 요인으로 여겨져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량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재실시하였다. 즉,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가 지니는 적응적 측면이

K-CAPS가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분석 결과,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을 제외한 K-CAPS는 BTPS를 통제하였을 때 불안에 대해 1.7%라는 유의한 추가 설명량을 보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에도 1.9%라는 추가적 설명량을 보여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을 제외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0.9%)보다 상승한 설명량 값을 보였다. 이에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 변수에 대한 증분타당도가 검증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요인을 제외하고도 우울에 대해서는 유의한 추가적 설명량을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와 원칙도 개발 연구의 결과 간 차이에 있어,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가 지니는 적응적 속성을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는 꾸준함과 성실성을 추구하고, 완벽주의가 성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이동귀 등, 2021). 따라서, 대학생들의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실질적으로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가 한국인의 학습에 있어서 보다 긍정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를 배제하였을 때, K-CAPS는 BTPS 이상으로 불안, 학업적 스트레스를 설명해주었지만, 우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학업적 완벽주의가 높다는 것이 대학생에게 불안과 학업 스트레스는 심화시킬 수 있는 경향성이나, 이 자체로 우울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령, K-CAPS와 우울 간에는 제3의 변인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성과 수준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같은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을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성과가 높다면 우울감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고, 반대로 성과가 낮다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처럼 학업적 완벽주의와 우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제3의 변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까지 개발 및 타당화된 완벽주의 척도들은 대부분 완벽주의 경향성을 전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격 특질으로 가정하여, 다차원적인 완벽주의 척도 형태로 구성하였다. 하지만 최근 완벽주의 경향성이 특정한 영역에 초점화되어 나타날 가능성을 바탕으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진소연 등, 2014; Dunn et al., 2005). 본 연구 결과, K-CAPS는 학업과 관련된 변수인 학업 스트레스,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탈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신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학업 스트레스 변수에 대해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인 BTPS보다 더 많은 설명량을 갖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K-CAPS가 ‘학업’이라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임이 확인되었고, 이는 완벽주의가 특정 영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가능성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초점화된 영역의 완벽주의 연구가 확장되고 더욱 활발히 진행되는 것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를 한국 문화에 맞게 번안하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하는 절차를 거쳐, 국내 대학생들이 학업 영역에서 보이는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마련하였다. 국내 대학생들에게 학업이란 미래의 취업, 진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한국 사회는 점차 능력주의화 되어가며 성공적 사회 진출을 위해 더욱 많은 스펙과 완벽함을 요구하고 있다(최윤호, 정남운, 2020). 이러한 사회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국내 대학생들은 높은 목표를 세우고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 경향성을 갖게 된다(황혜영, 장유진, 김명섭, 2021). 이를 증명하듯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완벽주의와 학업 관련 변수들 간의 연구는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강하연, 안정광, 2021; 김유선, 2021; 전경남, 이정민, 2018; 조수현 등, 2017). 하지만 대부분의 완벽주의와 학업 관련 연구에서 완벽주의 경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국내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동시에 학업 영역을 초점화하여 마련된 완벽주의 척도가 부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영역에 초점화된 완벽주의 척도를 타당화 함으로써 한국 사회 문화를 반영한 학업적 완벽주의와 다양한 학업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 등이 확장되는 것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적 확장은 추후 상담 장면에서 학업적 완벽주의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담자들에게 상담 개입적 초점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K-CAPS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통해 한국 대학생들에게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는 우울, 불안, 학업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업소진의 하위요인인 무능감과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 효능감과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는 학업적 영역에서 완벽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 학업적 완벽주의의 동기로 작용하기 때문에 높은 성취, 완벽함을 추구하는 한국 문화의 특성상 더욱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박효진, 주현정, 2020; 송윤희, 2014). 따라서 완벽주의 경향성으로 인해 학업 영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담자가 상담 장면에서 내방하였을 때, 완벽주의 경향성을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제거하려고 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수 있는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방향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지향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을 파악하여 이를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이동귀 등, 2021).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을 통한 자기보고식 설문 형태로 진행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자기보고식 검사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응답자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장 실시보다 응답자가 무성의한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특성상 응답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왜곡하여 응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형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관찰이 가능한 환경에서 설문을 실시하거나 혹은 반구조화된 면담 형태의 연구 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원척도 논문인 Liu와 Berzenski(2022)의 연구에서는 타당도 검증을 위해 BTPS, 우울, 불안,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학업소진 외에도 학업 참여, 자아존중감을 포함한 8개의 변수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가 설문시 느끼게 되는 피로감을 고려하여 가장 수렴, 변별, 증분타당도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변수들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원척도 논문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 중 몇 가지를 제외하게 되면서 포괄적인 정보를 담아내는 것에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원척도 논문에서 사용한 학업 참여, 자아존중감, 성격 5요인, 정서 조절의 어려움, 자기비판 수준, 성인 기질, 강박, PBQ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본 연구는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횡단적 연구 형태로 진행되었다. 횡단 연구는 단기간에 연구 실시가 가능하므로 시간과 경제

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변수 간 상관관계 확인 이외에 인과관계 확인은 어렵다는 점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동일 대상에게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재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종단적 연구를 진행하여 학업적 완벽주의와 관련 변수들간의 인과관계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완벽주의가 비교적 안정적인 성격적 특질로 여겨지고 있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학업적 영역에 초점화된 완벽주의인 만큼 학년에 따라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이 달라지는지 혹은 시험 기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완벽주의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 시간의 흐름에 따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된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를 국내 문화에 맞게 타당화하여, 한국 대학생들의 학업적 완벽주의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학업 영역에 초점화된 완벽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학업적 완벽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는 내담자들이 적응적인 학업적 완벽주의 경향성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상담적 개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 문헌

- 강요한, 오창진, 송원영 (2020).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 사후반추사고를 통한 자기위로능력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6(3), 229-245.
- 강하연, 안정광 (202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지연행동의 관계: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7(1), 21-38.
- 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행동치료, 11(2), 95-111.
- 김경령, 서은희 (2017). 완벽주의와 지연행동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Hewitt 과 Flett 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55(4), 65-89.
- 김경희, 권재환 (2016). 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학업·진로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직업교육연구, 35(3), 1-27.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서울: 학지사.
-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교육학연구, 39(1), 95-123.
- 김유선 (2021). 국내 대학생의 학업소진 관련변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내, 하정희 (2006). 완벽주의와 자의식이 남녀 대학생의 섭식장애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7(2), 107-131.
- 김현정 (2003). 완벽주의, 충동성, 자기효능감, 및 실패공포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정, 손정락 (2006). 적응적 완벽주의,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자아존중감, 일상적 스트레스, 반추 및 우울의 관계. 스트레스研究, 14(1), 23-31.
- 뉴스와이어 (2014). 직장인 67.2% “나는 회사에서 완벽주의 추구한다”.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47460>. 2014년 4월 22일 인출.
- 문화진 (2023). 대학생의 성취 목표 지향성과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완벽주의 성향의 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13(1), 69-92.
- 박병기, 박선미 (2012). 학업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 26(2), 563-585.
- 박보람, 양난미 (2012). 대학생의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학업적 지연행동의 관계: 수행회피 성취목표와 자기구실 만들기 전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2), 541-561.
- 박현주 (1999). 기능적 완벽주의 집단과 역기능적 완벽주의 집단의 구분 및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효진, 주현정 (2020). 완벽주의 군집별 자기효능감, 학습전략 및 대학생활적응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21(2), 489-515.
- 방준영 (202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의 조절효과.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석희, 김정규 (2015). 완벽주의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71-271.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백용매, 나양수 (2001). 완벽주의와 성격의 내-외향성이 스트레스 경험 후 부적 정서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9(2), 31-40.
- 서종근 (2015). Validation of the Generalized Anxiety Disorder-7 (GAD-7) and GAD-2 in patients with migraine: 편두통 환자에서 범불안장애 설문지의 타당성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손경희, 김남희 (2018). 간호대학생의 완벽주의 성향, 불안 및 학업스트레스와의 관계.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2), 577-587.
- 송윤희. (2014). 대학 이러닝 학습자의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몰입, 학업성취도 및 만족도와의 관계. 평생학습사회, 10(2), 105-123.
- 송창호 (2010). 영역별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효능감 및 대학생활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선임, 심은정 (2017).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간의 관계: 자기비난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5(1), 95-115.
- 신희건 (2013).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 측정도구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이러닝 강의를 수강하는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관계 규명. 컴퓨터교육학회 논문지, 16(1), 81-95.
- 윤미현, 박효진, 주현정 (2021). 완벽주의, 자기효능감, 학업지연, 대학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규명.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321-334.

- 이동귀, 손하림, 김서영 (2021). 네 명의 완벽주의자. 서울: 흐름출판.
- 이설악, 양수진 (2019). 대학생의 적응적,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 내적통제성과 자기격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6(4), 85-111.
- 이수연, 이정운 (201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개인기준 완벽주의가 재수생의 학업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20(2), 377-403.
- 이수민, 양난미 (2011). 완벽주의가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717-738.
- 이수현, 김아영 (2012).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6(4), 1113-1136.
- 이순목, 윤창영, 이민형, 정선호 (2016). 탐색적 요인분석: 어떻게 달라지나?. 한국 심리학회지: 일반, 35(1), 217-255.
- 이은정 (2018).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적 착수-완수 지연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자영, 양도선 (2016). 사이버대학생의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스트레스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교육방법연구, 28(3), 421-441.
- 이한나 (2018). 한국판 완벽주의 척도(BTPS)의 타당화 연구.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진, 주인석, 김명찬 (2019). 완벽주의 연구동향 및 관련변인 간의 상관관계 메타분석: 상담학 분야 주요 학술지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20(3), 343-368.
- 임정섭, 박세영 (2015).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학업몰입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지역과 세계, 39(2), 1-29.
- 임혜선, 김정윤, 홍혜영 (2023). 한국판 공격자 동일시 척도(K-IA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5(3), 997-1022.
- 잡코리아 (2020). 대학생 '행복지수'보다 '스트레스지수' 더 높아. <http://joburl.kr/71cq7>. 2020년 11월 23일 인출
- 전경구, 김교현, 이준석 (2000). 개정판 대학생용 생활 스트레스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2), 316-335.
- 전경남, 이정민 (2018). 완벽주의와 학업지연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학습자중심

- 교과교육연구, 18(4), 523-552.
- 조수용, 임영진 (2018). 대학생의 자기 지향적 완벽주의와 시험불안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지각된 정서적 지지의 조절 효과. *청소년학연구*, 25(8), 159-179.
- 조수현, 정지현, 신호정 (2017). 다차원적 완벽주의와 학업소진 관계에 관한 메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4(3), 349-379.
- 진소연, 서수균 (2014). 차원과 영역별 완벽주의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297-313.
- 천경희, 송영명 (2012). 의과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완벽주의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50(4), 107-132.
- 최윤호, 정남운 (2020). 완벽주의 군집유형 분류: 높은 기준이 부여되는 원천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1), 523-545.
- 탁진국 (2007). *심리검사: 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허만세, 박병선, 배성우 (2015). 한국어판 축약형 CES-D 척도의 측정불변성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2), 313-339.
- 허효선, 임선영, 권석만 (2015). 완벽주의와 충동성이 학업적 착수지연 및 완수지연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4(1), 147-172.
- 홍명희, 김수영, 강승희 (2020).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학업소진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사회불안의 병렬다중매개효과.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161-192.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혜영, 장유진, 김명섭 (2021). 대학생의 학업적 완벽주의 프로파일에 따른 학업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자기조절, 그릿 및 시간 사용. *아시아교육연구*, 22(2), 487-513.
- Bartlett, M. S. (1950). Tests of significance in factor 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136-162.
-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14(6), 34-52.

- Çapan, B. E. (2010). Relationship among perfectionism,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5*, 1665–1671.
- Crocker, L., & Algina, J. (1986). *Introduction to classical and modern test theory*. Holt, Rinehart and Winston, 6277 Sea Harbor Drive, Orlando, FL 32887.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
- DeVellis, R. F., & Thorpe, C. T. (2021). *Scale development: Theory and applications*. Sage publications.
- Di Fabio, A., Saklofske, D. H., Gori, A., & Svicher, A. (2022). Perfectionism: A network analysis of relationships between the Big Three Perfectionism dimension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99*, 111839.
- Dunkley, D. M., Blankstein, K. R., Halsall, J., Williams, M., & Winkworth, G. (2000). The relation between perfectionism and distress: Hassles, coping, and perceived social support as mediators and modera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4), 437.
- Dunn, J. G., Gotwals, J. K., & Dunn, J. C. (2005). An examination of the domain specificity of perfectionism among intercollegiate student–athlet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6), 1439–1448.
- Egan, S. J., Wade, T. D., & Shafran, R. (2011). Perfectionism as a transdiagnostic process: A clin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2), 203–212.
- Fekih–Romdhane, F., Sawma, T., Obeid, S., & Hallit, S. (2023). Self–critical perfectionism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satisfaction with life in Lebanese university students. *BMC Psychology*, *11*(1), 1–9.
- Flett, G. L., Hewitt, P. L., & Dyck, D. G. (1989). Self–oriented perfectionism,

- neuroticism and anxie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0*(7), 731–735.
- Frost, R. O., Marten, P., Lahart, C., & Rosenblate, R. (1990). The dimensions of perfectionism.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 449–468.
-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 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Black, W. C.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Hamachek, D. E. (1978). Psychodynamics of normal and neurotic perfectionism. *Psychology: A Journal of Human Behavior*.
- Hayton, J. C., Allen, D. G., & Scarpello, V. (2004). Factor Retention Decisions i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 tutorial on parallel analysis.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7*(2), 191–205.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
- Hill, A. P., Appleton, P. R., & Mallinson, S. H. (2016).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Performance Perfectionism Scale for Sport (PPS-S).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4*(7), 653–669.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Kaiser, H. F. (1960).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computers to factor analysi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1), 141–151.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1), 31–36.
- Kohout, F. J., Berkman, L. F., Evans, D. A., & Cornoni-Huntley, J.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 Liu, C., & Berzenski, S. R. (2022). Colleg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40*(4), 465–481.
- Nanda, J. M. R., Sugiyo, S., & Sunawan, S.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Students' Academic burnout. *Jurnal Bimbingan Konseling, 11*(3), 175–182.
- Pacht, A. R. (1984). Reflections on perfection. *American Psychologist, 39*(4), 386.
- Pérez-Rojo, G., Martín, N., Noriega, C., & López, J. (2018).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ASP-12 in a Spanish older community dwelling sample. *Aging & mental health, 22*(5), 700–708.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Schaufeli, W. B., Martinez, I. M., Pinto, A. M., Salanova, M., & Bakker, A. B. (2002). Burnout and engagement in university students: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3*(5), 464–481.
- Shafran, R., Cooper, Z., & Fairburn, C. G. (2002). Clinical perfectionism: A cognitive-behavioural analysi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0*(7), 773–791.
- Shafran, R., & Mansell, W. (2001). Perfectionism and psychopathology: A review of research and 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21*(6), 879–906.
- Shea, A. J., Slaney, R. B., & Rice, K. G. (2006). Perfectionism in intimate relationships: The dyadic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9*(2), 107–125.
- Shou, Y., & Olney, J. (2020). Assessing a domain-specific risk-taking construct: A meta-analysis of reliability of the DOSPERT scale.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5*(1), 112–134.
- Shin, H., Puig, A., Lee, J., Lee, J. H., & Lee, S. M. (2011). Cultural

- validation of the Maslach Burnout Inventory for Korean student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2, 633–639.
- Slaney, R. B., & Ashby, J. S. (1996). Perfectionists: Study of a criterion group.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4(4), 393–398.
- Smith, M. M., Saklofske, D. H., Stoeber, J., & Sherry, S. B. (2016). The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 A new measure of perfectionism. *Journal of Psychoeducational Assessment*, 34(7), 670–687.
- Spitzer, R. L., Kroenke, K., Williams, J. B., & Löwe, B. (2006). A brief measure for assessing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GAD-7.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166(10), 1092–1097.
- Steed, S., Ley, S., Ence, T. C., & Jamieson, D. (2009). Development of the Maladaptive Academic Perfectionism Scale. *Intuition*, 5, 39–43.
- Stoeber, J., & Stoeber, F. S. (2009). Domains of perfectionism: Prevalence and relationships with perfectionism, gender, age, and satisfaction with lif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530–535.
- Terry-Short, L. A., Owens, R. G., Slade, P. D., & Dewey, M. E. (1995). Positive and negative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8(5), 663–668.
- Wang, K. T., Kang, M. S., Lee, H. C., & Sipan, I. (2023). The Religious Perfectionism Scale: A cross-cultural psychometric evaluation among Christian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Psychology and Theology*, 51(2), 251–262.
- Yang, H., & Stoeber, J. (2012). The physical appearance perfectionism scale: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4, 69–83.

부 록

1. 설문에 대한 안내 및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2.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CAPS)
3. 학업소진 척도 (MBI-SS)
4. 불안 척도 (GAD-7)
5. BTPS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
6. 축약형 CES-D 척도
7. 학업 스트레스 척도
8.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부록 1. 설문에 대한 안내 및 인구통계학적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연구자 서란희 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본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은 대학생의 학업 상황에서 나타나는 성격, 생각, 정서, 행동과 관련한 연구를 위해 제작되었으며,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귀하가 응답하시는 문항에는 정답이 없으며, 귀하의 의견을 듣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응답하지 마시고, 귀하가 학업 상황에서 경험하는 실제 생각, 정서, 행동을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설문을 통해 수집한 귀하의 응답 자료는 통계법에 의거하여 비밀보장되며 학술적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무기명으로 관리되며 연구자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관 후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응답이 해당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오니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의 있게 응답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설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연구자 : 서란희

지도교수 : 김나래

E-mail : (설문시 작성하여 진행하였고, 추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삭제)

◎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에 대한 동의

- 본 설문지의 응답 내용에 대한 이용 및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실 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 ① 예 ② 아니오

◎ 기본정보 - 인구통계학적 정보수집을 위한 귀하의 개인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2. 귀하가 태어난 연도를 적어주세요. (예) 2001 ()

3. 귀하는 현재 몇 학년입니까?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기타 ()

4. 귀하의 전공은 어느 계열입니까?

- ① 교육 ② 예술 및 체육 ③ 인문 및 사회 ④ 이학 및 공학 ⑤ 의료보건
⑥ 서비스 ⑦ 기타 ()

5.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및 경기 ② 충청도 ③ 강원도 ④ 전라도 ⑤ 경상도 ⑥ 제주
⑦ 기타 ()

부록 2. 대학생용 학업적 완벽주의 척도 (CAPS)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평소 학업, 과제, 시험에서 느끼는 감정이나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문항 내용 중 ‘수행’은 학업, 과제, 시험에서의 결과, 성과, 실적을 의미합니다. 문항을 주의 깊게 읽고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O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	문 항	전 혀 동 의 하 지 않 는 다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약 간 동 의 하 지 않 는 다	약 간 동 의 하 는 다	동 의 하 는 다	매 우 동 의 하 는 다
1	학교 과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학교에서 완벽한 성적을 받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학교 과제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시험에서 완벽한 점수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우선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학교에서 올 A+ 성적을 받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나는 시험에서 최대한 완벽한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내가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할 때, 나의 자존감이 손상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내 자기 가치는 학업 수행에 의존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학업 성공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내가 학업적 수행에서 완벽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를 존중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만약 내가 시험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만약 내가 학교 과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하면 부끄러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학교 과제에서 감정을 당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학교 과제에서 저지른 작은 실수는 나를 속상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시험을 친 직후, 거의 항상 내 수행에 대해 확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학교 과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주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내가 교수님(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걱정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내가 수업에서 얼마나 잘하든 상관없이 나의 학업 능력에 대해 의심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내 점수가 완벽하지 않을 때 나는 나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시험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판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나는 교수님이 나의 실수를 지적하면 나 자신에게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나는 시험에서 나의 수행에 결함이 있을 때 나 자신을 용서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과제에서 나의 수행이 완벽하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나의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서 올 A+를 받지 못하면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내가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교수님들은 나에게 실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내가 학교에서 완벽한 성적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은 나를 알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내가 시험에서 완벽하지 못하면 동기들은 나를 무능력한 사람으로 볼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부록 3. 학업소진 척도 (MBI-SS)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학업과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O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질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공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메마른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지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부를 하거나 수업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공부로 인해 지쳤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현재 학교 공부에 대해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현재 공부에 대한 열정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공부가 미래에 도움이 될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공부가 중요한지 의심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공부하면서 생기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학교 수업에 활발하게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 생각에 나는 훌륭한 학생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학업 목표를 성취할 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공부를 통해 흥미 있는 내용을 많이 배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수업 중 활동을 잘했다고 확신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4. GAD-7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7-item Scale)

▣ 다음 문항들은 여러분이 지난 2주 동안 다음의 문제로 인해 얼마나 자주 방해를 받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방해 받지 않는다	며칠 동안 방해 받았다	2주 중 절반 이상 방해 받았다	거의 매일 방해 받았다
1	초조하거나 불안하거나 조마조마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2	걱정하는 것을 멈추거나 조절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3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걱정을 너무 많이 한다.	①	②	③	④
4	편하게 있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5	너무 안절부절 못해서 가만히 있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6	쉽게 짜증이 나거나 쉽게 성을 내게 된다.	①	②	③	④
7	마치 끔찍한 일이 생길 것처럼 두렵게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부록 5. BTPS (Big Three Perfectionism Scale)

▣ 다음 문항들은 개개인의 성격과 특징을 기술해 놓은 내용들입니다. 주의 깊게 읽으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 호	문 항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매 우 그 렇 다
1	나는 완벽해지기 위한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능한 한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시도하는 모든 일에서 완벽하다는 것이 내겐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완벽하게 일을 한다. 완벽하게 할 게 아니면 아예 그 일을 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나는 항상 완벽을 지향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완벽해지기 위한 노력을 그만둔다면, 나는 절대 그런 나 자신을 존중할 수 없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7	사람으로서 나의 가치는 완벽한가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8	가능한 한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은 내 자신이 가치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 자신에 대한 나의 평가는 완벽한가에 달려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실수를 저지르면,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 매우 걱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실수를 한다는 생각은 나를 두렵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수치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4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는 것도 나를 당황스럽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나의 대부분의 행동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내가 하는 대부분의 일에 대해 안심이 안된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내가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확신할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어떤 일을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가혹하게 내 자신을 심판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의 수행이 완벽에 미치지 못할 때, 나는 내 자신에게 매우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할 때, 내 자신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내 수행이 완벽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용서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24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지 않을 때마다 사람들은 나에게 실망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사람들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은 흠이 없어야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완벽하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사람들은 내가 그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한다고 불평한다.	①	②	③	④	⑤
32	다른 사람들이 일을 완벽하게 하는지가 나에게 중요한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33	나는 다른 사람의 불완벽함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34	나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불만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그들에게 불만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규칙을 바꾸어주기를 기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완벽한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나를 신경쓰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9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당연히 최고이다.	①	②	③	④	⑤
40	나는 내가 완벽하다는 것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41	다른 사람들은 나의 완벽함을 몰래 동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6. 축약형 CES-D 척도

▣ 아래에 적혀 있는 문항을 잘 읽으신 후, 지난 1주 동안 당신이 느끼고 행동한 것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숫자에 ○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나는 지난 1주일 동안	거의 드물게 0~1일	때때로 1~2일	상당히 3~6일	대부분 6~7일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하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부록 7. 학업 스트레스 척도

▣ 다음 문항에는 당신이 학업 상황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이 적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며 각 사건이 당신에게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잘 나타내는 숫자에 O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없었다	가끔 있었다	자주 있었다	매우 자주 있었다
1	공부해야 할 과제의 분량이 너무 많았다.	①	②	③	④
2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3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려웠다.	①	②	③	④
4	공부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았다.	①	②	③	④
5	기대보다 성적이 나쁘다.	①	②	③	④
6	전공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7	중요한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부록 8. 학업적 착수-완수지연 척도

▣ 다음 문항들은 대학생들이 학업 영역에서 겪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주의 깊게 읽으며 자신의 생각과 일치된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O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이제 보고서를 시작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과제를 늦게 시작하는 습관을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일을 일찍 시작해서 꾸준히 진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보고서 과제가 주어지면 “나중에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는 것을 미룬다.	①	②	③	④	⑤
6	보고서를 미리 준비하기 시작하더라도 자료를 모으는데 열중하다가 마감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서둘러 완성시키기 바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습관적으로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그러다가 마감기한이 가까워졌을 때 서둘러 과제를 끝내느라 고생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보고서를 시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①	②	③	④	⑤
9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교수님께서 제출일을 늦춰 주셨으면”하고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중요치 않은 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해서 결국 과제를 늦게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매번 과제 시작을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늘 과제 시작을 미루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12	일의 시작을 미루는 것은 나의 큰 고민거리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빨리 끝낼 수 있는 과제라도 늦게 시작해서 제출이 늦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4	보고서 제출일이 가까워져야 비로소 자료를 찾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보고서를 일찍 쓰기 시작했는데도 마감 전 날에 밤을 새운다.	①	②	③	④	⑤
16	일을 일찍 시작하더라도, 도중에 더 이상 어떻게 진행시켜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마무리가 늦어진다.	①	②	③	④	⑤
17	과제를 아무리 일찍 시작해도 빨리 마무리 지을 때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8	아무리 금방 끝낼 수 있는 간단한 과제라도 일찍 시작한다. 하지만 이상하게 완성이 늦어지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부록 9.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 다음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으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숫자에 ○ 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항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편안하게 설문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비록 실패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틀리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13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4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집중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5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를 잘 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8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1	교수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⑤	⑥
22	시험을 치루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⑥
23	수업시간 중에 교수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24	토론을 할 때, 혹시 창피를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표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5	수업시간에 발표를 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26	교수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28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진다.	①	②	③	④	⑤	⑥